

기다리는 동안



공선옥

작가

〈꽃같은 시절〉,
〈영란〉, 〈유랑가족〉 등

오늘도 아이는 라면 끓일 물을 다 닦게 했다. 물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물이 끓는 동안 컴퓨터 앞으로 쭈르르 달려갔고 그동안에 라면물은 줄어들어서 결국 냄비조차 타기 일보직전이 되어서야 아이는 가스레인지 쪽으로 달려온 것이다.

그렇게 불에 올려놓고 지 불일 보다가 태워먹은 것이 냄비 뿐인가. 시커멓게 불에 탄 프라이팬은 또 그 얼마나 많은가. 목욕물 받아놓고 물이 넘치도록 또 지 불 일 보다 물이 다 식게 생긴 일도 여러 번이다. 밥 먹으면서 책을 보고 책 보면서 텔레비전도 보고 휴대폰도 받는다. 아이가 뭔가를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아이는 안절부절한다. 왜 이리 안와, 발을 동동거리다 차라리 택시 타고 가자고 졸라댄다. 막상 버스에 타서도 아이는 계속 스마트폰에 고개를 처박고 있다.

나는 아이가 언제 '생각'이란 것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아니, 자기가 '생각'을 하고 사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을 해봤는지 알지 못한다.

최근에 친구로부터 〈아스피린이 물에 녹는 동안〉이라는 제목의 자작시를 받았다. 친구는 머리가 아파서 먹으려고 물에 녹는 아스피린을 컵 안에서 녹이는 그 동안에 온갖 생각을 다했는가 보았다. 아스피린이 물에 녹는 그 동안은 짧지만, 그 짧은 동안에 친구는 제 주변사람들을 다 생각하고 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생각한다는 시였다. 친구의 그 시처럼 우리 일상에서 바로 그렇게하는 동안은 참 많다.

나는 짜이차를 좋아한다. 우유를 끓이다 짜이차 한 숟갈을 넣고 그것이 온갖 무늬를 만들어내며 끓는 그 순간이 좋다. 나는 짜이차가 끓으며 만들어

OPINION

나는 무늬 들여다보기를 즐긴다. 무늬들이 살아 있는 것 같다. 순간이면 사라져 버릴 그 무늬들에서 나는 이 세상의 온갖 형상을 다 본다. 사람이 춤추는 모습, 웃고 하품하고 찡그리고 울고 체조를 하고 새가 날고 앉고 잠자고 나뭇잎이 새로 나고 지고 꽃들이 피고 꽃이 진다. 그러나 나도 실은 짜이차가 끓는 그 짧은 동안을 참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몇 번이나 차가 넘치는 불상사를 겪곤 했다. 끈적이는 찻물이 레인지 주변에 넘쳐 타는 냄새가 나서야 달려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것이 끓는 그 짧은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슨 중요한 일을 하러 갔던 것인지 기억도 없다.

“

**순간이면 사라져 버릴 그 무늬들에서
나는 이 세상의 온갖 형상을 다 본다.**

”

아스피린이 녹는 동안은 아스피린이 녹는 것만 바라보기, 짜이차가 끓는 동안은 짜이차 끓는 것만 바라보기,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은 버스 오기만 기다리다가 그러나 어찌 오직 그것만 바라보는 시간일 것인가. 내 친구가 아스피린이 녹는 동안 그랬듯이 나 또한 짜이차가 끓는 동안 이 세상의 온갖 움직임과 무늬를 보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먼 곳에서부터 타박타박 걸어오는 나를 바라보고 또 먼 곳을 향해 타박타박 걸어가는 나를 보게 될 것인데.

늘 무언가를 하고 있는 자신만 보다가 혹은 늘 어딘가로 가고 있는 자신만 보다가 가만히, 그야말로 가만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다. 내 모습을 확인

히 볼 수 있고 내 주변이 명확해지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다.

예전에 누군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것도 안하고 '먼 산' 바라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 요즘 아이들은 심심할 겨를이 없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심심해 할 틈을 주지 않아서인지 이제 아이들 자신이 심심한 순간을 참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것은, 모든 처음인 것은 다 심심한 순간에 생겨났다. 모든 예술은 심심한 바로 그 시간들에 잉태된 것이다.

요즘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영화도 1부와 2부가 있어 그 사이에 휴식시간이 있었다. 막간의 휴식. 우리 인생에도 그런 막간의 휴식

이 필요하다. 육체의 눈을 쉬게 하고 귀를 쉬게 할 때만 마음 속 눈과 마음 속 귀가 열린다. 그때에야, 날이 밝기 직전의 말할 수 없는 부산함, 밤이 오기 전의 은밀한 수련거림을 들을 수 있다.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고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시간이란 그리고 언제나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동안이다.

지금쯤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이다.

국정공백을 메우는 관료시스템과 지방자치



권선필
목원대학교 교수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나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못하는 국정공백사태가 또 다시 반복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하는 우리의 헌법제도 하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임기말 누수 현상에서 시작하여,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부터 소위 말하는 정권교체기 개점휴업상태를 지속하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서도 정부조직개편과 내각임명과정에 또 다시 국정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식 대통령 중임제나 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거의 반년이상이 지속되는 이러한 개점휴업상태의 국정 공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 삶은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북핵문제와 같은 민감한 안보문제나 구미의 불산누출과 같은 사안이 벌어져도 청와대나 내각에서의 국정공백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뒤집어 말하면 청와대나 내각이 국가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되돌아 보면 18년 철권통치를 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의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다. 대통령이 곧 정부라고 생각하였고, 대통령의 서거로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나거나 온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긴장에 온 국민이 가슴 조마조마했던 경험이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것도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래임덕과 국정공백도 그렇게 긴장하며 조마조마할 일도 아닌 것으로 바뀌가고 있는 듯 싶다.

이렇게 국정공백에도 국민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나름대로 안정화 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대통령 한사람에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고, 내

OPINION

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정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안정적인 관료시스템과 아울러 지방자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관료시스템은 대통령이나 장관과 같은 정부직 리더들이 바뀌도 일정한 수준의 안정적 국정관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해준다. 국방과 치안과 같은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에서부터, 기업과 산업 경제를 관리하는 경제시스템의 운용은 물론 문화와 교육까지도 일정한 수준의 국가기능은 관료들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나 내각이 일정기간 제기능을 못해도 괜찮은 것이다.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관료시스템보다 더 중요하게 국정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이다. 사실상 일반 국민의 일상적 삶에 관련된 국가기능은 대부분 지방자치에 의해서 제공되고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먹거리는 물론, 교통, 교육과 복지 등 일상적 삶에 직결된 것들이 사실상 지방자치의 맥락에서 제공되고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관료시스템조차도 지방자치의 맥락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국가적인 관료시스템은 대통령이나 내각의 권력공백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권력공백은 관료제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즉시 국정공백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권력공백과 그로 인한 국정공백이 온다해도 지방자치가 잘 되는 곳에서는 중앙정부에서의 권력공백과 관계없이 관료시스템도 정상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번 반복되는 정권교체기의 국정공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대통령제의 한계를 개선하는 헌법 개정이나 정부직 공무원에 대한 청문회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한 분권형 국가구조로의 개편이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을 지방에 더 많이 부여하도록 하면, 권력교체가 마다 반복되고 있는 국정공백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료시스템의 최적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아직도 성숙되지 않아서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해 온 중앙집권적 논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IMF경제위기에서 최근의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에서 나타나는 경제문제는 물론 고령화나 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 문제, 정규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평생교육과 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교육현실까지 그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에서 이제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주어 다양한 혁신적 실험과 그로 인한 변화대응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